

# 『漂人領來臚錄』 속의 濟州島 漂流民과 海域\*

김강식\*\*

- I. 머리말
- II. 『漂人領來臚錄』의 제주도 표류민 사례
- III. 『漂人領來臚錄』 속의 제주도 해역
- IV. 『漂人領來臚錄』 속의 제주도 표류민의 송환
- V. 맺음말

## 국문요약

17~18세기 중반에도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표류민이 발생한 지역으로 해역의 변화상을 설명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조선후기의 자료 『漂人領來臚錄』에는 일본으로 표류했던 제주도인의 표류사례 30건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의 표류민은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추자도와 제주 해역에서 표류당하여 일본의 九州의 肥前州, 筑前州, 對馬島에 주로 표착하였다. 표착 후에 표류민은 長崎나 對馬島를 거쳐서 조선 동래부로 송환되었다가 제주로 돌아왔다. 조선후기가 되면 표류민의 송환은 국가 사이의 절차에 따랐는데, 이것은 자연적 현상에 인위적 체제가 작동하여 마무리되었음을 말해 준다. 제주도 표류민은 표착지에서 일본인과 만나면서 일본문화를 접하기도 했다.

17~18세기 중반에 제주도 표류민의 표류 시기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거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1-B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울철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제주도민이 표류선에 승선한 이유는 進上을 하러 가거나 진상을 마친 이후에 제주도로 귀환하는 과정이었다. 제주도 표류민의 표류선에는 진상 외에도 무역, 추쇄 등 다양한 이유로 同船한 경우가 많았다. 17~18세기 중반에 표류한 제주도 표류민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본 현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출신지를 전라도의 군현으로 위장하여 換稱한 점이다. 그것은 일본에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이었는데, 異文化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은 모습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제주도 해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표류민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제주도 인근 국가에 표류한 사례까지 포함하여 검토함으로써 제주도 해역에서의 표류민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던 표류민 송환 문제를 동아시아 차원에서 규정함으로써 해역사 연구를 새롭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도 제주도는 주목되는 지역이다.

주제어 : 제주도, 표류민, 해역, 표인영래등록, 환칭.

## I. 머리말

전근대시기 동아시아에서 海域을 이용한 네트워크는 국가 차원에서는 교역이나 장거리 교역로를 통해서 朝貢貿易의 免稅 특혜를 활용하여 주요 교역항을 다각적으로 연결시켰다. 반면에 민간 차원의 해역은 다층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성격이었는데,<sup>1)</sup> 자연발생적인 漂流도 官의 조공 통치 지면에 적용되어 해역으로서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표류를 통해서 지리적인 해역을 확인하고, 민간 해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 조선과 일본은 정치·경제적 교류 외에 다양한 접촉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양국 사이에 많은 표류와 송환이 있었다. 그러므로 양국 사이에서 표류민의 송환이라는 인적 교류는 공식 외교의 일부분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러한 표류민 문제는 동아시아 해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중국, 한국, 나아가 동남아시아까지 국경을 초

1) 尾本惠市 外 엮음, 김정환 옮김, 『바다의 아시아 1』, 다리미디어, 2003.

월한 연구 주제이다. 조선시대에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는 엄격한 출입국 관리와 무역 관리를 동반한 대외관계가 존재했다. 그런데 표류라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국가의 대외 관리 입장에서는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때문에 표류민 문제는 국가 사이의 대처 문제에서부터 표류민의 이문화 인식과 해외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sup>2)</sup>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표류민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대외관계사 관점의 체제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sup>3)</sup> 체제론적 연구에 대한 반성으로 표류민을 통해서 전근대 한일 사이의 교류사에서 도외시되어 왔던 변경지역에서 바다를 매개로 한 민간차원의 접촉과 양상을 볼 수 있는 지역사의 입장,<sup>4)</sup> 민간인의 교류가 금지되었던 시기에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변경 지역 사이의 다양한 민간교류는 유일하게 異文化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문화교섭의 입장,<sup>5)</sup> 국민국가 성립 이후의 해역 체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sup>6)</sup>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후기에 조선과 일본의 사이에서 표류민에 대한 연구는 특정지역에 표착한 조선인과 그들을 둘러싼 여러 사항에 관한 연구, 표류에 의한 교류를 해역교류 혹은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sup>7)</sup> 나아가 표류민을 소재로 일본인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연구,<sup>8)</sup> 표류 관계 기록을 통해 상업 활동과 포구 사이의 상품유통 양상을 밝힘으로써 사회경제적 실상을 파악한 연구

- 
- 2) 劉序楓, 「표류, 표류기, 해난」, 『해역 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2012.
  - 3)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1988;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 573, 歴史學研究會, 1987; 李薰,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 4) 池內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 5)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 573, 歴史學研究會, 1987.
  - 6) 모모키 시로 역음, 최연식 옮김, 『해역 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2012.
  - 7)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1988;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 573, 歴史學研究會, 1987; 李薰,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 8) 池內敏, 「18세기 일본 민중의 조선 인식」, 『東方學志』 8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도 있다.<sup>9)</sup> 조선후기에 조일 사이에서 표류민 문제는 조선이라는 국가와 일본의 지방 영주에 의한 교섭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조선후기에 표류민 문제는 국가 차원의 외교체제를 강조하는 경우,<sup>10)</sup>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우로<sup>11)</sup>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표류가 일어난 해역은 시대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원래의 지리적 해역은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통제적 해역의 시기에도 해역 내부에서의 메커니즘은 작동했는데,<sup>12)</sup> 이러한 해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표류민이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보면 제주도 는 지속적인 민간 해역의 중심지였으며, 해역의 변화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표류와 해역을 대부분 분리해서 연구해 왔다.

지금까지 표류와 해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의 표류와 해역에 대한 연구성과도 있다. 먼저 지금까지 제주도 해역에 대해서는 조선전기까지의 제주도 해역을 다룬 연구,<sup>13)</sup> 제주도 해역 세계의 연구방법을 제시한 연구,<sup>14)</sup> 근세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체제 속에서 제주도 표류민의 일본 표착과 송환을 언급한 연구,<sup>15)</sup> 제주를 중심으로 표류한 구체적

- 9) 高東煥,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양상-漂流關係記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鄭成一, 「漂流記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 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漂人領來謄錄〉과 〈漂民被仰上帳〉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99, 국사편찬위원회, 2002.
- 10) 關周一, 『中世日朝海域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高橋公明,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歴史學研究』 573, 歴史學研究會, 1987; 荒野泰典 「近世日本の漂流民送還体制と東アジア」, 『歴史評論』 400, 歴史科學協議會, 1983
- 11) 岸浩, 「長門沿岸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を巡る諸問題の検討」, 『朝鮮學報』 119・120, 朝鮮學會, 1986;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關周一, 『中世日朝海域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 12)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 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2012.
- 13) 高橋公明,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民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8, 제주도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과 고려」, 『島嶼文化』 2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2; 關周一, 『中世日朝海域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 14) 구모룡, 「해역세계와 제주도학의 방법」, 『해양풍경』, 산지니, 2013.
- 15) 荒野泰典, 「근세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체제와 국제관계」, 『항해와 표류의 역사』, 국립제주도박물관, 2003.

인 국가와 지역에 대한 연구<sup>16)</sup>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제주도 표류민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다. 조선전기의 제주도 표류민의 발생 원인을 자연환경적 배경으로 토지척박과 자연재해, 사회구조적 배경으로 과다 수취와 말교역 통제에 따른 경제 기반 붕괴에서 찾고, 1629년(인조 7)의 출륙금지령으로 제주도 유민의 소멸 계기로 설명한 연구도 있다.<sup>17)</sup> 나아가 제주도를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공간으로 파악하여 탐라의 조연과 제주도 해민에 대한 연구도 있으며,<sup>18)</sup> 19세기 『濟州啓錄』을 이용하여 제주도인의 표류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sup>19)</sup>

그러나 17~18세기의 제주도 표류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임진왜란 이후의 동북아시아에서의 海禁에 의한 통제, 조공무역 체제에 의한 국제질서의 안정화로 표류민의 발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리적 해역 안에서의 표류와 민간 교류는 지속적이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의 표류민 발생도 조선후기에 지속되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17~18세기 중반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제주도 표류민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지리적 해역의 범위를 확인하고, 표류민을 통한 해역의 교류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7~18세기 중반의 제주도민의 표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漂人領來臚錄』에서 제주도민의 표류사례를 찾아내어 제주도 표류민의 경향과 해역의 범주 등을 파악해서 해역 세계의 지속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표류는 전근대시기에 단순한 해난사고가 아니라, 그 해결 과정에서

16)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2007; 정운경, 『탐라문건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제주 르포르』, 휴머니스트, 2008; 송정규, 『해외문건록-제주목사 송정규, 바다 건너 경이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다』, 휴머니스트, 2015; 이창익·윤용택·쓰하 다카시, 『제주와 오키나와-동아시아 지역간 이동과 교류』, 보고서, 2013(이러한 연구처럼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역 중심에 있어서 인근 지역으로 많은 표류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제한적으로 『漂人領來臚錄』을 중심으로만 살펴보았다).

17) 이영권,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역사』, 도서출판 한울, 2013.

18) 고용희,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도서출판 각, 2006.

19) 고창석, 「19세기 제주도인의 표류실태」,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강창룡 외 7인 공저), 일지사, 1997.

부분적으로는 민간차원의 문화교섭의 통로가 되었음을 밝히고, 나아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해역의 범위와 네트워크를 그려보고자 한다.

## II. 『漂人領來臚錄』의 제주도 표류민 사례

조선시대에 조선과 일본은 정치·경제적 교류 외에 다양한 접촉을 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속성을 보인 문제가 표류민이었다. 이에 양국 사이에는 표류와 송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627~1824년에 조선 표류민의 송환회수는 270건이었다<sup>20)</sup>고 하며, 1599~1888년 사이에 표류사례는 전체 1,112건, 표류민은 10,796명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표류하였다<sup>21)</sup>고 한다. 조선후기에 양국 사이의 표류민 송환이라는 인적 교류는 공식 외교의 일부분으로 연결되고 있었다.<sup>22)</sup> 조선후기의 자료인 『漂人領來臚錄』은<sup>23)</sup> 조선인의 일본 표류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표인영래등록』의 주요 내용은 일본으로 표류했다가 돌아온 조선 표류민에 대한 審問調書, 조선인 표류민의 송환과 관련된 외교의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표인영래등록』에는 1641년(인조 19)부터 1751년(영조 27) 사이에 전체 표류사례는 282건, 배의 수는 359척, 표류민은 3,705명이 발생하였다고<sup>24)</sup>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도인이 출항하여 표류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荒野泰典, 앞의 책, 1988. 池內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21) 池內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부록.

22) 李薰,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23) 『漂人領來臚錄』은 『漂人領來臚錄』(奎12956)과 『漂人領來差倭臚錄』(奎12954)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의 기록이었다. 전체 20책 가운데 『漂人領來臚錄』은 1, 2, 3, 5, 18, 19, 20책이며, 나머지는 『漂人領來差倭臚錄』이다. 다만 이 가운데 17책이 남아 있지 않으며, 7책과 8책은 내용이 대부분 겹친다. 기사는 대부분 날짜순으로 실려 있다. 1993년에 금호문화시리즈로 영인되었다. 본고에서도 이 영인본을 참고하였다(『漂人領來臚錄』 一~七, 보경문화사, 1993).

24) 朴眞美, 「《漂人領來臚錄》의 綜合的 考察」, 『경북사학』 19, 1996, 201쪽.

〈표 1〉 『漂人領來臚錄』의 제주도 표류민 사례 분석

연번	표창기록일	선박	표류인원	대표	출항 목적	표류 기간	표류지	표창지	승환 일	嚮接 慰官
1	壬辰(1652) 06.23	1	11	金石天	柑子 進上	辛卯 10.06~10	제주	肥前州 五島	06.15	양산 군수
2	乙巳(1665) 02.14	2	48 (1명 사망)	金元祥	大殿誕日方物 箋文	~1월 초		五島	07.04	밀양 군수
3	己未(1679) 10.21	1	26 (전원 사망)		감자 진상	~01.24	제주	薩摩州 甌島	10.14	양산 군수
4	庚申(1680) 02.09	1	41	田雨	鯨 進上 후 귀환	戊寅 11.28~12.04	강진	對馬島 鰐浦	02.02	영산 현감
5	己卯(1699) 06.01	1	54 (2명 사망)	梁聖遇	진상, 무역	11.29~12.07	추자도	薩州 屋久島	05.20	양산 군수
6	己卯(1699) 09.05	1	4(여자 1)	俞順男	粉藿 진상물 채취	04.28~05.03	제주	五島	윤 07.28	양산 군수
7	庚辰(1700) 07.21	1	44	洪太漢	감자 진상, 무역	己卯 10.29~11.11	청산도	薩摩州	07.08	울산 부사
8	壬午(1702) 08.02	1	42	吳世相	新官 迎來	辛巳 12.26~01.06	별도포	薩摩州 屋久島	07.18	양산 군수
9	甲申(1704) 07.03	1	39(사망 1, 실종 1)	尙俊	唐柚子 진상, 무역, 推奴	01.10~27	해남	薩州 永良郡島	06.22	홍해 군수
10	乙酉(1705) 윤4.14	1	37	李壽萬	감자와 全鯨 등 진상, 무역	甲辰 12.12~19	추자도	肥前州 平戶島	윤 04.02	울산 부사
11	丙戌(1706) 06.20	1	7	金月善	質穀 資生	02.02~05	청산도	肥前州 五島	06.07	양산 군수
12	戊子(1708) 윤3.22	1	21	金以云	雜物 진상, 換質 穀物	丁亥 12.12~18	울도	肥前州 班島	윤 03.12	울산 부사
13	戊子(1708) 04.07	1	28(여 1, 사망 5)	權圭安	柚子 진상, 公私 무역	丁亥 12.12~22	추자도	五島 岐宿村	윤 03.25	대구 관관
14	乙未(1715) 06.19	1	22	李福	本島 移轉穀 載運	01.13~16	추자도	五島	06.05	양산 군수
15	丁酉(1717) 08.28	1	11 (사망 1)	金善白	경상도 移轉穀 載運	01.10~13	장기	肥前州 五島	07.26	울산 부사
16	戊戌(1718) 08.14	1	31 (사망 5)	李公連	무역	02.27~03.01	보길도	肥前州 平戶島	07.28	차인 현감
17	辛丑(1721) 05.17	1	28	姜莫林	各司 納付物 적제	庚子 11.15~22	추자도	筑前州 新宮浦	04.30	
18	辛丑(1721) 05.17	1	15 (사망 1)	高戒輝	進上納物載	12.03~06	제주	壹岐島	05.05	
19	癸卯(1723) 07.24	1	26 (아동 1)	金贊難	進上納 후 귀환	03.25~30	제주	五島 自五島	07.12	양산 군수
20	癸卯(1723) 09.29	1	23	姜次萬	진상 물건 載持	04.08~10	제주	五島	09.12	양산 군수
21	癸卯(1723) 10.05	1	11	李次正	採藿 후 제주도 환귀 배 探知	04.08~10	강진	五島	09.01	양산 군수

22	甲辰(1724) 04.19	1	60	李春建	진상 곡물 적재, 유배 죄인 운송	02.14~17	해남	對馬島 久根浦	04.06	양산 군수
23	乙巳(1725) 04.26	1	11	金萬男	質穀興販	甲辰 11.07~13	해남	五島 奈留島	04.14	영일 현감
24	庚戌(1730) 03.27	1	20	姜以萬	興販	己酉 09.24~10.02	강진	肥前州 五島	03.15	양산 군수
25	癸丑(1733) 10.04	1	2 (16명 탑승)	文孝良	唐人 押付(漢船)	01.05~10	강진	肥前州 五島	09.19	영일 현감
26	戊午(1738) 06.29	1	13	李萬雄	官家 質販物 甘藷 등 質穀	02.11~14	남해	五島	06.18	양산 군수
27	壬戌(1742) 02.02	1	3 (실종)	高萬雄	質鹽	辛酉 08.16~21	제주	肥前州 五島	01.17	양산 군수
28	乙丑(1745) 05.29	1	14 (사망 4)	梁吉萬	白蠟 進上	甲子 09.24~10.07	제주	肥前州 五島	05.20	양산 군수
29	丁卯(1747) 06.05	1	11	康興白	捉魚	戊寅 12.23~26	제주	肥前州 平戶	05.22	
30	庚午(1750) 10.01	1	11	尹德贊	質鹽, 興販	己巳 09.18~28	강진	薩摩州 七島	09.18	

『漂人領來謄錄』에 나타나는 제주도 출신의 표류민 전체 사례는 위의 <표 1>과 같다. 이처럼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 있는 제주도민의 표류민 사례는 海禁의 시기에도 제주도가 지속적인 민간해역의 중심이었으며, 해역의 변화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표인영래등록』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조선후기에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전체 제주도인의 표류민 사례는 30건이었다. 제주도인의 표류는 연도별로 보면 1652년 이후 1750년까지 꾸준히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지만, 1723년에는 3건, 1708년과 1721년에는 2건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해에는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漂人領來謄錄』에 나타난 제주도 표류민 30건 가운데 세 사례를 통해 표류민이 발생하여 송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1680년의 제주도 표류민 사례이다. 조선후기에 일본으로 표류한 조선인은 대마도를 거쳐서 동래로 왔는데, 差倭가 데리고 왔다.

동래부사 李瑞雨가 2월 9일 成貼한 장계에 따르면,本月 3일 부산첨사 李尙勳의 馳通에 왜선 7척과 우리나라 漂風船 2척 합하여 9척이 나왔는데, 館所로 領付하였다고 한다. 초탐장 趙世弼의 馳報에 假訓導 吳允文 등이 問情한 回言에 의거하면, 제1선은 己未條副特送船 1호이며, 제2선은 同特送船 2호, 제3선은



水木船으로 서계를 가지고出來했으며, 제4선은 우리나라 昌原漂風領來差倭 正官 藤正次 등이 서계를 가지고 출래했으며, 제5선은 全羅道漂風人出來倭 正官 平久良 등이 서계를 가지고 출래했으며, 제6선은 昌原漂風人 4명을 나누어 싣고 路引을 가지고 호위해 왔으며, 제8선은 같은 표풍선에 표풍인 16명, 指路沙工 1명, 通詞倭 1명, 格倭 등이 같이 타고 出래했다고 한다. 대마도에서 탐문한 즉 같은 왜인 등이 말한 것과 별다른 것이 없으며, 이 領來差倭漂風人 등에 대한 근본 원인은 서계 중에 상세하게 있으므로 변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가지고 온 서계는 전례에 따라 茶禮日에 呈納할 것으로 여겨진다.<sup>25)</sup>

이처럼 1680년에는 왜선 7척과 표류선 2척이 함께 왔다. 표류민을 송환하기 위해 대마도에서 출발한 왜선이 동래 앞바다에 들어오는 것이 포착되면, 부산진과 동래부에서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이때 조선 譯官들이 초량왜관으로 들어가 표류민의 신원을 확인하고 표류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였는데, 이를 問情이라 하였다. 이후 조사결과는 동래부사, 경상감사를 거쳐 중앙의 禮曹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표류한 표류인들이 조선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대마도에서의 조사를 토대로 왜인들에게 康津 商民이라고 거짓으로 말했느냐고 조선 관리가 물으면, 강진 상민이라고 바꾸어 말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제주도라는 글자를 감추기 위해 호패를 불태웠다고 진술하였다.<sup>26)</sup>

당시 표류민은 일본 대마도의 府中에서 散料를 분급받고 出來하였는데, 1680년의 경우에는 田雨 등 4인은 각 면포 2필, 胡椒 3근, 冊木 20근, 小烟升 50개, 大匣枝 32개씩을 분급받고, 나머지 37명은 襦衣 1領, 冊木 20근, 小烟升 50개, 大匣枝 32개씩 분급받고, 2월 29일에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려 差倭船과 동시에 출발하여 동래에 도착하였다.<sup>27)</sup> 그런데 동래에 도착한 이후 표풍인을 취조하고, 거주와 성명을 작성하여 비변사로 보냈다. 이때 표풍의 원인과 그동안의 사정을 추문하여 부산진에서와 다름이 없으면 原籍官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差倭의 書啓別幅에 따라 接慰官을 차정하고, 禮單을 준비하도록 하였다.<sup>28)</sup> 1680년의 제주

25) 『漂人領來謄錄』 책3, 경신(1680) 2월 9일, 123~124쪽.

26) 『漂人領來謄錄』 책3, 경신(1680) 2월 9일, 123~124쪽.

27) 『漂人領來謄錄』 책3, 경신(1680) 2월 9일, 118~119쪽.

28) 『漂人領來謄錄』 책3, 경신(1680) 2월 9일, 123~124쪽.

도 표류민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680년 제주도 표류민 사례

직역	신분	이름	거주	승선 사유
幼學		田雨	제주	제주도인, 정사년 관광차 上京, 제주도 귀환
通徳郎		金羽達	제주	위와 동일
校生		金興雨	제주	위와 동일
內禁衛		朴忠林	제주	병진년 상경 내금위 隨士, 觀親次 제주도 귀환
武業		李希晟	제주	상년 9월분 掬引釧 진상, 領去 還來, 武學
	寺奴	於等金	제주	위와 동일
假吏		姜汝立	정의	各司 노비 貢木 押領 上京, 下來
	寺奴	德男	정의	위와 동일
格軍	寺奴	愛男	정의	상년 8월분 상납 貢物戴持釧, 격군 상경, 부친喪 먼저 下來
鎭撫		金繼道	제주	軍器 회계 문서 마련차 상경, 下來
鎭撫		金泰重	제주	위와 동일
射夫		金時傑		
	寺奴	永男		
烽軍	寺奴	金命立	대정	各司 노비 收貢案 상납차 上京, 下來
	私奴	己元	대정	위와 동일
	私奴	苐叱(一)	제주	아산 거주 상전前 納貢次 進去, 하래
	私奴	己必	제주	위와 동일
	私奴	伊先	제주	통진 거주 상전前 納貢次 進去, 하래
	私奴	命吉	제주	京 거주 상전前 納貢次 進去, 하래
	私奴	貴鶴	안동	상전 時任 제주도 정의현감 본댁의 書狀을 가지고 進去, 상년 11월 28일, 위 진상 戴來 還歸
	私奴	得男	상주	濟州居 班奴處 收貢次 入往
	私奴	伊福	상주	위와 동일
	私奴	有吉	京	京 거주 臨昌君 댁 奴子, 상전 제주도 定配, 往見次, 제주도 入往
	私奴	士民	京	위와 동일
격군	私奴	己男	제주	상년 8월 領掬引釧 진상釧, 격군 出來, 還 入往
격군	寺奴	汝好	제주	상년 9월 領掬引釧 진상戴來釧, 격군 出來, 入往
격군	私奴	莫福	제주	위와 동일
격군	私奴	金興男	제주	위와 동일
격군	私奴	所乙福	제주	위와 동일
격군	私奴	准同	제주	위와 동일
격군	寺奴	彘子	제주	위와 동일
격군	寺奴	應世	제주	위와 동일

격군	寺奴	金德日	제주	위와 동일
격군	寺奴	石一	제주	위와 동일
격군	私奴	莫先	제주	위와 동일
격군	寺奴	閑先	제주	위와 동일
격군	寺奴	順男	제주	위와 동일
격군	寺奴	張宗甫	제주	위와 동일
격군	寺奴	宋閑	제주	위와 동일
격군	私奴	得福	제주	위와 동일
격군	寺奴	應申	제주	위와 동일

1680년에 송환된 제주도 표류민은 41명이었다. 이들의 직역을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幼學 通德郎 校生 內禁衛 武業 假吏 射夫 烽軍이 각 1명, 鎭撫 2명, 格軍 18명이었다. 이들의 신분은 寺奴 15명, 私奴 17명으로 노비가 32명으로 대부분이었지만, 양반과 중인 계층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1680년 제주도 표류민이 승선한 이유는 다양하였지만, 進上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반 3명은 정사년에 관광차 上京했다가 제주도로 귀환하는 중이었다. 나머지는 병진년에 상경하여 內禁衛에서 隨士하다가 覲親次 제주도로 귀환하는 경우,各司의 奴婢貢木을 押領하러 上京했다가 下來하는 경우, 지난해 8월분 上納貢物戴持缸의 격군으로 상경하였다가 부친상을 당해 먼저 下來하는 경우, 軍器 회계 문서를 마련차 상경했다가 下來하는 경우,各司 奴婢收貢案 상납차 上京했다가 下來하는 경우, 아산·통진·한성에 거주하는 上典前 納貢次 進去했다가 下來하는 경우, 상전인 時任 제주도 정의현감 본택의 書狀을 가지고 進去했다가 還歸하는 경우, 濟州에 사는 班奴處에 收貢次 入往한 경우, 京 거주 臨昌君 맥 奴子로 상전이 제주도에 定配되자 往見次 제주도에 入往한 경우, 지난해 8월 領槌引餽進上缸의 격군으로 出來했다가 入往한 경우, 지난해 9월 領槌引餽進上戴來缸의 격군으로 出來했다가 入往한 경우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進上船의 격군으로 참여했다가 제주도로 귀환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1708년의 金以云 일행 사례이다.<sup>29)</sup> 그들은 일본의 五島에 표착

29) 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자료인 『公義被仰上』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

하여 長岐로 갔다가 대마도로 보내졌다. 이에 대마도는 정식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표류민을 송환해 주었다.

동래부사 韓配夏가 윤3월 27일 成貼한 장계에 따르면,本月 25일 부산첨사 尹以經의 馳通에 왜선 2척이 나왔으며, 石城 烽軍의 보고에 의거하여 哨探次 본진 2紅將 徐後日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26일 부산첨사 馳通에, “出來해 온 왜선 2척을 館所로 데리고 갔다.” 하고, 초탐장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곧장 혼도 吳允文과 別差 金顯門 등이 問情을 한 手本에, “왜관에 들어가서 문정을 하였는데, 대마도에는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하며, 島主가 江戶로부터 이번 달에 대마도에 도착하였고 한다. 제1척은 우리나라 漂人領來差船의 正官 源乞教와 封進押物 1명, 伴從 3명, 格倭 40명 등이 같이 배를 타고 書啓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제2척은 제주도 漂人 22명과 여인 1명, 屍身 5명 및 通事倭 각 1명, 禁徒倭 4명 格倭 40명 등이 같이 배를 타고 路引을 가지고 왔으며, 正官倭가 가지고 온 서계는 茶禮가 열리는 날 納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sup>30)</sup>

이처럼 1708년의 金以云 일행 사례는 왜선 2척이 표류민만을 송환해 준 사례로 주목된다. 그런데 이들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을 때 일본에서 제주도 사람이 康津 商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 한 명이 태운 이유를 질문 받았다. 이에 대해 표류민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우리들 28명 중에 26명이 사실은 제주도 사람입니다. 본주(제주도) 月令 柚子 進上과 大靜縣監 遞任 進上馬 2필 및 公私貿易 本錢馬 12필, 甘藷 등의 물건을 한 배에 싣고, 正德年(1706년) 9월 27일 본주에서 배를 띄워 동년 10월 海南 都會官에 도착하여, 진상 물건 監色과 馬夫 7명은 모두 육로로 上京을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19명은 배를 타고 부안 沙津浦에 도착하여, 말과 미역으로 換質한 正租 300석, 육지에 사는 노비 收貢米 15석을 싣고, 상경했던 감색 등이 돌아온 까닭에 한 척에 같이 타고 海南현에 도착하였습니다. 경상도 선산부에 사는 사내중 徐叅伊와 계집중 點花 등 남매는 대정현감 노비인데, 그의 상전 牌子로 인하여 제주도로 들어가는 터라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11월 10일 배를 띄워 靈巖 甫吉島 앞바다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12월 12일 날이 밝아지자 본토(제주도)를 향해 출발하였는데, 겨우 楸子島 앞바다를 지났을 때, 같은 날 미시

레가 있다(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272~281쪽).

30) 『漂人領來謄錄』 책9, 무자(1707) 4월 7일, 375~376쪽.

쫓 서풍이 갑자기 크게 일고 파도가 하늘에 닿아 앞뒤의 風帆과 尾木이 한꺼번에 부러져 배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크고 작은 짐과 대정현감 仍任의 일에 대한 該曹의 關文은 모두 다 바다에 던져 버린 후에,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여 十晝夜를 지난 후인, 12월에 비로소 한 섬에 닿았다. 곧 일본국의 이른바 五島 岐宿村이었는데, 깜깜한 밤이라서 咫尺을 분간할 수 없어 타고 가던 배가 뾰족한 바위에 부딪혀서 조각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sup>31)</sup>

김이운 일행은 제주도로 귀환 도중 추자도 앞바다에서 표류하여 10일 후에 五島 岐宿村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제주도 표류민 28명 중에서 李 己守 등 3명이 滄死하였는데, 시신 3구는 일본에서 관을 만들어 斂襲해 주었다고 했다. 나머지 25명은 겨우 살았는데, 한 촌락의 왜인들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粥을 주어서 위급함을 면할 수 있었다.<sup>32)</sup>

1708년 김이운 일행의 제주도 표류민은 岐宿村에서 8일 후인 9월 30일에 五島의 도주에게 領付됐다. 여기서의 음식과 酒饌을 제공받았으며, 襦衣 1領씩 分給받고 14일을 머문 후인 정월에 출발하여 정월 22일에 長岐에 도착했다. 그런데 생존자 25명 가운데 權圭安 등 2명이 병으로 죽었다. 42일 후인 3월 4일 배를 타고 출발하여 3월 17일 대마도 府中에 도착했다. 여기서의 供饌는 長崎보다 나왔다. 10일을 머문 후인 윤3월 4일에 差倭船과 표류인인 탄 배, 2척이 출발하여 佐須浦에 도착하여 7일을 머문 후인 윤3월 25일 출발하여 동래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10월 5일 제주도 사람들이 경상도 통영으로 가서 쌀을 사서 오려던 때에 같은 고을의 여인 한 명을 태우게 되었는데, 일행은 12월 8일 큰 바람을 만나 돛대가 부러져 표류하였다고<sup>33)</sup> 진술하였다.

한편 1708년 김이운 일행은 28명인데, 이 가운데 26명은 제주도 사람인데도 강진 사람으로 換稱하였다. 그리고 李己守, 梁有萬, 尹後峻은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고, 權圭安과 梁道見은 병으로 사망했다. 1708년 김이운 일행의 직역을 분석해 보면, 沙工 김이운 1명, 格軍 27명이었다. 이들의 신분은 寺奴 21명, 私奴 5명, 私婢 1명이었다. 1708년

31) 『漂人領來臈錄』 책9, 『漂人領來臈錄』 책9, 무자(1707) 4월 7일, 378~379쪽.

32) 『漂人領來臈錄』 책9, 무자(1707) 4월 7일, 375~376쪽.

33) 『漂人領來臈錄』 책9, 무자(1707) 4월 7일, 375~376쪽.

김이운 일행은 대부분은 노비 계층이었으며, 격군이였다. 그런데 일행 중에는 경상도 선산부에 사는 사내중 徐叅伊와 계집중 點花 등 남매는 대정현감 노비인데, 그의 상전 牌子가 제주도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같이 타고 있다고 한다.<sup>34)</sup>

셋째, 1724년 제주도 표류민 李春建 일행의 사례이다. 이 표류는 제주도 표류민 30건 가운데 가장 많은 제주도 사람이 타고 표류한 사례이다.

동래부사 尹遊가 4월 13일 成貼한 장계에 따르면, 본월 6일 申時에 황령산 烽軍 金自隱五乙未, 간비오 봉군 韓次汗 등의 進告에, 朝倭未下船 2척 水湄에서 出來하다가 표류하여 左道로 향한다고 하였다. (중략) 제주도 표민선 1척에 표민 56명 및 왜선에 타고 오는 표민 2명이 본선에 환승하여 모두 60명 및 指路沙工 2명, 通詞倭 1명, 禁徒倭 4명 등이 함께 타고 路引을 가지고 漂民을 順付해 왔다. 예조 서계와 별폭 각 1통 및 동래·부산서계 1통, 별폭 2통, 등본 1통, 표민선에 가지고 온 路引 1개 등을 奉上하여 올렸다고 하며, 같은 順付原書啓 및 送使倭書啓 등은 茶禮가 열리는 날 예에 따라 納모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sup>35)</sup>

그런데 이들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을 때 제주도 사람이 羅州人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표류민들은 그 이유를 일본인이 제주도인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sup>36)</sup> 답하였다. 1724년 李春建 일행의 표류민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724년 李春建 일행의 표류민 사례

직역	신분	이름	거주	승선 사유
	良人	洪正夏	제주	제주도 正朝 方物 筒筒 結弓 獐皮 진상 陪持 色吏
	양인	俞世位	제주	제주도 2월승 靑橘 攄引 饌 진상 陪持 色吏
	양인	金自焯	제주	제주도 正朝 陳賀 箋文 陪持 色吏
陪從人	官奴	姜朝日	제주	위 3건 진상 陪從人
배종인	관노	朴善伊	제주	위와 동일
배종인	양인	姜有連	제주	위와 동일

34) 『漂人領來臚錄』 책9, 『漂人領來臚錄』 책9, 무자(1707) 4월 7일, 379~380쪽.

35) 『漂人領來臚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30~37쪽.

36) 『漂人領來臚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30~37쪽.

배종인	양인	高世江	제주	위와 동일
沙工	寺奴	李春建	제주	제주도 各樣 進上 물건 및 軍器 소용 잡물 무역 本錢 등 所載缸의 沙格
格軍	양인	高進石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奉龍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高萬先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善伊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承迪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高元日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李正山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汝明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銀日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安碩萬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高山斤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高千善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次民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高日伊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玄元寶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李厚發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申以成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鄭成寶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高就迪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申再興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鄭世俊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貴海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高得萬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汝成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日萬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黃金伊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泰海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양인	任重昌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양인	金守澄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白眞伊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黃金伊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高尙迪	제주	위와 같음
격군	시노	李春友	제주	위와 동일

격군	시노	金守萬	제주	위와 동일
	양인	金連興	제주	의금부 서리
	양인	安級	제주	제주도 軍器  화약 貿易使위와 동일
격군	양인	車世萬	강진	禁府 서리 제주도 入往時 탄 배의 격군
書吏		金德哈	京	죄인 李壽民 掌來事
서리		河宗漢	京	죄인 李壽民 仍配事
閑良		尹壽建	京	私事 제주도 入往
	私奴	姜時海	京	私商 제주도 入往
	사노	金光郎金	京	사상 제주도 入往
유학		金泌	全義	推奴事 제주도 入往
	奴	武加伊	진의	김필의 奴
	양인	李斗玉	臨陂	사상 제주도 入往
	양인	申時才	영암	사상 제주도 入往
	사노	鄭哲重	舒川	제주도 判官 奴子 入往
	사노	金出萬白	부여	제주도목사에게 上典 서간 傳納次 入往

1724년 李春建 일행의 출신지를 분석해 보면, 전체 60명 가운데 기록이 나타나는 인물을 분석해 보면 45명은 제주도 사람이며, 한성 9명, 전의 2명, 임피 영암 서천 부여 각 1명이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추문 때 羅州 사람으로 換稱하였다. 李春建 일행의 직역을 분석해 보면, 沙工 이 봉건 1명, 格軍 37명, 色吏 3명, 進上陪從人 4명, 幼學 2명, 서리 2명, 私商 12명 등이었으며, 한량과 유학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신분은 寺奴 32명, 私奴 8명, 官奴 2명, 양인 13명, 양반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노비 계층이 42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1724년 이춘건 일행이 표류선에 승선한 이유는 다양하였다. 즉 제주도 正朝方物筒筒 結弓鎗皮 진상, 제주도 2月令靑橋搥引鯨 진상, 제주도 正朝陳賀箋文의 陪持色吏와 陪從人, 제주도 各樣 進上 물건 및 軍器 소용 잡물 무역 本錢 등을 실은 所載缸의 沙格, 제주도 軍器 화약 貿易使, 禁府 서리로 제주도 入往時 탄 배의 격군, 죄인 李壽民의 아들로 아버지를 따라 지난 해 6월 30일 제주도 旌義 配所 入往, 禁府 서리로 죄인 李壽民 掌來事 때 率奴, 지난 해 10월 19일 제주도에 入往하기 위해 죄인 押領出來次 대기 중, 河宗漢은 이수민의 仍配事의 公文 처리, 推奴의 일, 개인적인 일, 私商으로 제주도에 入往, 제주도 判官 奴子로 入往하여 제주도목사에게 上典 서간 傳納



次 入往한 경우였다. 이처럼 이춘건 일행의 대부분은 제주도의 進上, 私商의 무역을 위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일과 양반의 노비로서 주인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목적의 사람들이 같은 배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Ⅲ. 『漂人領來臚錄』 속의 제주도 해역

조선후기에 제주도 해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표류민 문제를 해역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해역은 평면적인 물의 세계가 아니라 일상적인 민과 官, 육지와 바다가 정치, 교역, 문화의 영역에서 서로 얽히면서 교섭하는 장이다. 이러한 해역은 지리적 해역, 통제적 해역, 영역적 해역, 개방적 해역으로 나눌 수 있다.<sup>37)</sup> 해역 세계는 沿海, 環海, 連海로 구성된다. 이러한 해역 세계는 다원성, 다양성, 포괄성을 가지며, 해역 통치는 다층 구조인데, 관의 통치와 민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관이 인정하는 조공무역 안에 표류무역이라고 불리는 교역 활동과 표류민 송환규정이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자연적인 표류가 관의 조공체제 저변에 그대로 적용되어 해역으로서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다고<sup>38)</sup>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漂人領來臚錄』에 나타난 제주도 표류민 사례를 해역사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에 표류민들의 제주도 해역에서 출항한 목적은 제주도가 포함된 전라도인의 경우 크게 출어, 상업 활동, 공적인 업무와 관련

37) 지금까지 해역사 연구는 아시아에서는 일본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 근세국가와 국민국가의 성립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해역에 대해서도 영토적 입장과 근대 국가 성립이라는 시각에서 해역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 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2012; 濱下武志, 「동양에서 본 바다의 아시아사」, 『바다의 아시아』 1, 다리미디어, 2003). 이에 근대 국민국가 이전부터 존재했던 해역을 이들과는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역의 분류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글에서 구체화시켜 보고자 한다.

38) 濱下武志, 「동양에서 본 바다의 아시아사」, 『바다의 아시아』 1, 다리미디어, 2003, 137~138쪽.

이 있었다고<sup>39)</sup> 한다. 『漂人領來謄錄』에 나타나는 제주도의 출항 목적은 전체 297건 가운데 어업 117건, 상업 65건, 진상 40건(획득, 채취, 운송)으로 나눌 수 있다고<sup>40)</sup> 한다. 제주도는 30건 가운데 진상을 위한 출항 목표가 반을 차지하며, 상업도 다수 있다고<sup>41)</sup> 한다. 제주도 표류인은 전라도의 강진 등 포구에서 粟米 등의 미곡을 구입하기 위해 항해 도중에 사고를 당하는 것이 많았으며, 추자도가 사고 다발지역이었다. 아울러 다른 지역보다는 진상물(꿀, 복어, 조개, 목재)의 수송 도중에 많이 일어났는데, 미곡 구입 같은 상업활동은 진상물품의 운송과정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기도 했다. 제주도인은 미곡 구입을 위해서 경상도까지도 항해하기도 했는데, 경상도의 통영과 거제는 제주도인의 미곡 구입지였다<sup>42)</sup>고 한다. 실제 <표 1>을 참고하면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난 30건의 사례 가운데에서는 진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제주도 표류민의 출항 목적은 진상 15회, 무역 11회, 운반 1회, 고기잡이 1회, 표류한 한선의 唐人 押付 1회, 유배 죄인 운송 1회였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진상으로 출항한 경우가 많았지만, 출항의 목적이 단순한 진상만이 아니라 무역, 관의 공무 수행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전근대에 선박의 운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둘째, 제주도 해역에서의 표류의 원인은 바람과 해류 때문이었다. 조선후기에 전라도인의 표착수는 1628~1888년 사이에 411건, 5,049명이었다고<sup>43)</sup> 한다. 이 가운데 제주도인의 표착수는 136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런데 전라도 표류민의 표착지는 북쪽으로 隱岐에서 일본해 연안 지역, 남쪽으로는 九州와 대마도, 琉球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五島가 142건, 대마도가 106건으로 많았다고<sup>44)</sup> 한다. 이처럼 조선 표류민의 표착지는

39) 李薰, 앞의 책, 2000, 74~79쪽.

40)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01쪽.

41) 조선후기 전체 표류민 1,192건 가운데 전라도의 출항 목적은 366건이다. 이 가운데 전라도에 포함되어 있던 제주도의 경우 출어 42건, 상업과 유통 41건, 공무 23건, 기타 13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李薰, 앞의 책, 2000, 80쪽).

42) 李薰, 앞의 책, 2000, 80쪽.

43) 李薰, 앞의 책, 2000, 70~71쪽.

44) 李薰, 앞의 책, 2000, 71~72쪽.

일본의 가장 북쪽 北海島의 蝦夷에서 가장 남쪽 琉球에 이르기까지 일본 해역 전역에서 표착하였다. 구체적으로 對馬島가 106건, 本州 94건, 九州 75건, 琉球 3건, 蝦夷 1건이었다고<sup>45)</sup> 한다. 본주 중에서는 長門州가 6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제주도인의 표류 지점은 제주 인근 해역, 추자도, 강진과 해남 부근 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제주도민의 일본 표착지는 肥前州 20건(五島 포함), 薩摩州 6건, 筑前州 1건, 壹岐島 1건, 對馬島의 佐須奈浦 1건, 久根浦 1건이었다.<sup>46)</sup> 이렇게 肥前州와 薩摩州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도 제주도와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전라도인의 표류 시기는 9월에서 2월이 전체 표류건수의 78.5%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가을과 겨울에 한반도의 북서쪽 대륙에서 강한 계절풍이 불어오는 것과 일치한다고<sup>47)</sup> 한다. 그런데 『漂人領來謄錄』에 나타나는 제주도 해역에서 표류의 시기는 연중 발생하지만, 10월 전후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282건 가운데 215건이 발생하였다고<sup>48)</sup> 한다.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제주도인의 표류시기를 일본에 표착한 시기를 기준으로 월별로 살펴보면 겨울철에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1월 7회, 2월 3회, 3월 2회, 4월 2회, 5월 1회, 8월 1회, 9월 2회, 10월 2회, 11월 3회, 12월 7회였다. 이것은 계절풍과 해류의 영향 때문이었으며, 표류는 주로 동해안에서 발생하였다고<sup>49)</sup> 한다. 이처럼 조선의 동해안에서 계절풍과 해류를 따라 표류한 배와 사람들은 일본 해역에 도착

45)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09쪽(전체 표착지가 291건으로 표류횟수 282건보다 많은 것은 함께 표류하다가 송환되어 왔지만, 표착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6) 1599~1888년에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표류한 경우 표착지는 對馬島 26건, 五島 60건, 壹岐 1건, 肥前 17건, 大隅 2건, 薩摩 15건, 長門 1건, 但馬 1건, 長崎縣 5건, 島根縣 1건이었다(池內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이렇게 『표인영래등록』의 표착지와 池內敏의 연구성과에 의한 표착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池內敏의 연구는 표류민 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7) 李薰, 앞의 책, 2000, 72쪽;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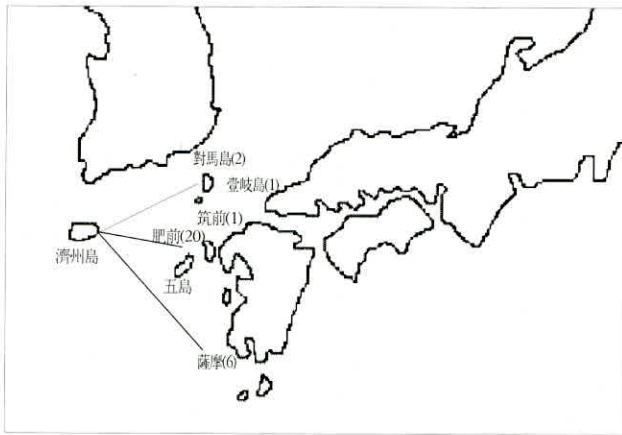
48)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06쪽.

49) 岸浩, 「長門北浦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唐人送り-」, 『山口縣地方史研究』 54, 1986, 7쪽.

하였다. 이 가운데 배는 74척이 부서지거나 소실되었으며, 사람은 11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sup>50)</sup> 한다.

이처럼 조선인의 일본 표착지와 표착 해역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었다고<sup>51)</sup> 한다. 전라도 해역에서 표류하면 五島의 서해안에 많이 표착하였으며, 경상도 해역에서 표류하면 대마도나 長門에 표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연중 대륙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었다. 아울러 해류의 영향도 컸다. 한반도의 동남쪽으로는 일본열도 밑을 흐르고 있는 黑潮에서 갈라져 나온 對馬 해류와 東鮮 해류 등이 해난사고 다발 지역 근처를 지나가고 있으며, 동해안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리만해류가 지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표류인 조사에서 조선인들은 사고해역에서 돌풍 또는 서풍이나 서북풍을 만나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sup>52)</sup> 조선인이 주로 겨울에 동해 해상을 지나는 북북서풍과 대마해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휘말리게 되면 일본해 연안지방에 도달한다고<sup>53)</sup> 한다.

〈지도 1〉 『漂人領來臚錄』에 나타난 제주도 표류민의 표착지



50)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09쪽.

51)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52) 대마도와 長門에서는 겨울에 부는 서풍이나 서북풍을 아나지(穴風)이라고 부른다고 한다(岸浩, 「長門北浦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唐人送り-」, 『山口縣地方史研究』 54, 1986, 7쪽).

53) 岸浩, 위의 논문, 7쪽.

넷째, 제주도 해역에서 일본으로 표류한 표류민은 출신지를 위장하였다. 이 문제를 통해서 당시의 조일 해역민의 서로에 대한 상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표류민의 거주지는 전체 349건으로 경상도 219건, 전라도 93건, 충청도 5건, 강원도 13건, 기타 17건이었다고<sup>54)</sup> 한다. 그런데 전라도 93건 가운데에서 제주도는 30건이었다. 표류민의 거주지는 9건의 경우 제주도 외에 다른 지역 출신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제주도 거주자였다. 제주도 밖의 거주자가 포함된 경우는 庚申(1680년) 2월 9일 제주도 외 3곳, 庚辰(1700) 7월 21일 제주도 외 1곳, 甲申(1704) 7월 3일은 제주도와 영암, 乙酉(1705) 윤4월 14일은 제주도 외 1곳, 戊子(1708) 4월 7일은 제주도와 선산, 戊戌(1718) 8월 14일은 제주도 외 2곳, 甲辰(1724) 4월 19일은 제주도 외 1곳, 癸丑(1733) 10월 4일은 제주도 외 2곳, 庚午(1750) 10월 1일은 제주도와 영암이었다.

그런데 『漂人領來謄錄』에 나타나는 제주도 표류민은 일본에 표착했을 경우 출신지를 제주도라 하지 않고 강진, 나주, 광주, 무안, 영암, 영광, 해남, 진도, 영산 등으로 위장하였다.<sup>55)</sup> 그 이유는 제주도의 암초를 잘 알지 못하는 왜인들이 제주도 근처에 왔다가 파선 당한 것을 일본에서는 제주도 표류민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었다.<sup>56)</sup> 그래서 왜인들이 제주도 표류민을 죽인다는 소문이 제주도인들 사이에 있었다. 이에 제주도 표류민들은 표류하면 號牌를 바다에 버리고 다른 지역 사람으로 위장하였다.<sup>57)</sup> 그리고 제주도 표류민임을 알 수 있는 柑橘과

54)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03~204쪽(표류건수가 282건인데, 표류민의 거주지가 349건인 것은 한 배에 다른 지역 거주자가 모여 같은 배를 탄 경우 각각의 거주지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55) 제주도인의 사칭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대외인식과 자아의식에서의 지역적 편차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池內敏, 앞의 책, 1998, 217~238쪽). 이 밖에도 유구 태자 살해설, 안남 태자 살해설 등이 제주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고창석, 「19세기 제주도인의 표류실태」,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216~219쪽). 1592~1909년 사이에 일본으로 표류한 제주도사람이 제주도라고 밝힌 경우는 53건, 다른 지역으로 위장한 경우는 97건이었다고 한다(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70~71쪽).

56) 『漂人領來謄錄』 책7, 임오(1702) 8월 2일, 499~500쪽.

같은 진상품은 모두 바다에 버렸으며, 표착한 후에는 표착지에 떠밀려 온 감귤상자와 장계의 封板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잡아땀다고<sup>58)</sup> 한다.

그런데 제주도 표류민이 출신지를 위장한 이유는 자신들의 해상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제주도인의 출신지 위장은 강진 27건, 해남 26건, 영암 19건이었다. 강진, 해남, 영암은 都會官이 설치되었던 것과 관련이 깊다고<sup>59)</sup> 한다. 이 세 곳은 제주도에서 육지를 오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는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도회관 운영비용도 세 지역이 분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곳은 잦은 선박의 출·입항 지역이자,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류가 부딪치는 지역이어서 표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아진다.

한 예로 1652년 金石夫 등 11명의 제주도 표류민이 肥前州 등 표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sup>60)</sup> 한다. 이들 표류민의 출신지는 제주읍, 전주 김석주는 48세, 승선 인원은 11명, 출항 목적은 제주도 進上柑子を 都會所 康津에 傳納하기 위해서였다. 출항일은 1651년 10월 6일, 출항지는 제주도였으며, 표류 원인은 광풍 때문이었다. 표류기간은 바다가운데서 4일이었으며, 표착일지는 10월 10일, 표착지는 肥前州 五島였다.<sup>61)</sup>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여 조사받을 때 1652년 제주도 표류민은 자신들을 康津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제주도 출신인 것이 일본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도 제주도 사람들의 형태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sup>62)</sup> 한다. 이들 표류민 일행 11명 가운데 金愛福은 병으로 죽어 長崎에 묻었다고 했다. 이후 그들은 1652년 2월 27일 馬島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구조되기까지 3일을 더 기다렸는데, 10월 10일 오후 고기잡이 하는 일본 배에 옷을 흔들어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다. 일본의 표착지에서 옷과 식량 등 구호물품을 지급받았다.<sup>63)</sup> 이

57) 『漂人領來臚錄』 책9, 갑신(1704) 7월 3일, 266쪽.

58) 『漂人領來臚錄』 책9, 을유(1705) 윤4월 14일, 297~298쪽.

59) 고창석, 「19세기 제주도인의 표류실태」,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강창룡 외 7인 공저), 일지사, 1997, 216~219쪽;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50~51쪽.

60) 『漂人領來臚錄』 책1, 임진(1652) 6월 23일, 148~170쪽.

61) 『漂人領來臚錄』 책1, 임진(1652) 6월 23일, 148~170쪽.

62) 『漂人領來臚錄』 책1, 임진(1652) 6월 23일, 148~170쪽.

처럼 제주도 표류민들도 일본에 표착하여 돌아오기까지의 심문 과정, 숙박, 구호품의 지급 등의 과정에서 제한적이지만 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표착이 없었던 지역의 일본인들은 조선인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 인식이 깊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에 일본인 일반의 조선 인식이 존재했다고 하기에 앞서서 지역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sup>64)</sup> 한다. 아마도 표류민의 잦은 표착은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 표류민들은 조선에 송환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표류한 날짜, 항해 이유, 항해처, 漂風을 만난 과정, 표착 사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대로 고하라는 심문을 받았다.<sup>65)</sup> 이때 대부분의 경우 기타 사정은 海夫들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sup>66)</sup> 이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표류민의 이문화 접촉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漂人領來臚錄』에 나타나는 제주도에서 일본에 표착한 선박 수는 1665년 2월 14일에 표류한 배는 2척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배 1척에 타고 표류하였다. 표착지 도착 때 표류선이 破船된 경우는 7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배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제주도인의 표류인원은 전체 714명으로 1회 평균 23.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제주도 표류민의 최소 표류인원은 2명, 최대 표류인원은 60명이었다. 그런데 표류민 가운데에는 여자가 1명씩 포함된 경우가 己卯(1699) 9월 5일과 戊子(1708) 4월 7일 2건, 아동이 1명 포함된 것이 癸卯(1723) 7월 24일 1건이었다. 이처럼 표류민은 대부분 남자였지만, 여자와 아이가 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자와 아이들이 표류선

63) 『漂人領來臚錄』 책1, 임진(1652) 6월 23일, 148~170쪽.

64) 池內敏, 「18세기 일본 민중의 조선 인식」, 『東方學志』 8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65) 『漂人領來臚錄』 책5, 을해(1695) 9월 8일, 616쪽.

66) 『漂人領來臚錄』 책5, 을해(1695) 9월 8일, 616쪽. 한편 구체적으로 답한 경우는 失農으로 밝힌 경우가 2차례 있을 뿐이다(『漂人領來臚錄』 책1, 신사(1641) 9월 24일, 8쪽).

을 탄 이유는 飢饉으로 인한 乞食과 연관이 있지만, 海夫들이 妻子를 거느리고 漁採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sup>67)</sup> 이러한 표류민은 대다수가 생존해 왔지만, 1679년에는 26명 전원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후기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표류한 경우 표류기간은 전체 282건 가운데 짧게는 하루, 길게는 20일이 걸렸으며, 3~4일이 62건으로 제일 많았다. 전체적으로 평균 4일 정도 걸렸다고<sup>68)</sup> 한다. 실제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제주도 표류민의 표류기간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1665년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 174일, 평균 6일이었다. 그리고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제주도인의 표류기간은 가장 짧은 경우는 2일, 표류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17일이었다.

#### IV. 『漂人領來臚錄』 속의 제주도 표류민의 송환

임진왜란 이후 표류민의 송환절차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조선인의 송환도 안정되어 갔다. 德川幕府가 표류민의 송환을 주도하면서 송환절차는 표착지-나가사키-대마도라는 우회경로를 거쳐서 대마도로 하여금 조선인을 송환하도록 했다. 송환비용은 무상송환을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조선후기에 막부 주도의 송환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조선은 대마번의 표류민 송환자를 漂差倭라는 일본 정식 외교사절로 인정하여 각종 접대를 하였다고<sup>69)</sup> 한다. 이때의 접대는 몇 차례의 연향과 조선국왕에 대한 숙배식 등 교린의례를 하는 것이었다. 표류민 송환제도는 1641년 이후 표차왜 일행에게 茶禮를, 1647년 이후 鄉接官에 의한 접대를 베풀었다고<sup>70)</sup> 한다. 이미 조선에서는 초기부터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던 표류민이 국가의 체제 속에서 송환되어 나가고 있었는데, 일본의 德川幕府가 안정

67) 『漂人領來臚錄』 책10, 신묘(1711) 5월 30일, 475쪽.

68)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09쪽; 李薰, 앞의 책, 2000, 64쪽.

69) 이훈, 「‘漂流’를 통해서 본 근대 한일관계-송환절차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3, 한국사연구회, 2003, 279~280쪽.

70) 李薰, 「朝鮮後期 대마도의 漂流民送還과 對日관계」, 『국사관논총』 26, 국사편찬위원회, 1991, 220쪽.



되면서 조선후기에는 국가의 체제 속에서 송환체제가 마련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제 조선후기에 제주도 표류민이 송환되어 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漂人領來謄錄』에 나타나는 제주도 표류민도 귀국 후 조선의 송환절차에 따라서 심문과 조사를 받고 난 후 제주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보통 조선 표류민이 일본해역 표착에서 조선에 송환되기까지 짧게는 1개월 미만에서 길게는 1년이 걸렸다고<sup>71)</sup> 한다. 本州 및 九州에 표착한 경우는 4~6개월이 2/3 정도였으며, 對馬島에 표착한 경우에는 1~3개월이 2/3 정도였다. 표류민의 조선으로의 송환은 1년 내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3~6월에 282건 가운데 159건이 송환되었다고<sup>72)</sup> 한다. 이것은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송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幕府와 幕府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sup>73)</sup> 임진왜란 이후의 국교 회복의 결과, 혹은 임진왜란의 전후 처리로서 徳川家康이 조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라고<sup>74)</sup> 파악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표류민에 의한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 접촉이 표착과 송환과정에서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표류민의 송환절차는 本州 및 九州에 표착한 경우와 對馬島에 표착한 경우가 달랐다. 本州 및 九州에 표착한 경우에는 長崎로 보내졌으며, 長崎에서 다시 對馬島를 거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대마도에 표착한 경우는 일단 府中으로 보내졌으며, 이곳에서 鰐浦나 佐須奈浦를 거쳐 조선 동태로 송환되었다.

먼저 本州 및 九州에 표착한 경우에 가장 많은 표류민이 표착한 長門州의 경우를 살펴보면, 長崎를 거쳐 對馬島에 도착한 후에는 대마도에 표착한 사람들과 같은 송환과정을 거쳤다. 때문에 長門州에서 長崎까지의 과정만 살펴보면,<sup>75)</sup> 연안 浦方漁民이 표류선을 발견하면 浦方役人(庄

71)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12쪽.

72)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16~217쪽.

73) 河野良輔, 「近世北浦沿岸における朝鮮漂着船の取捌きについて」, 『山口縣地方史研究』 6, 1961, 10쪽.

74) 岸浩, 「長門北浦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唐人送り-」, 『山口縣地方史研究』 54, 1986, 10쪽.

屋)에게 보고하고, 庄屋은 大庄屋에게, 大庄屋은 代官所 및 浦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현지의 代官 및 浦所役人は 현장에 출장하여 검사한 후 萩藩府에 보고하고, 다시 표류민, 배, 積荷을 萩藩府로 호송하였다.<sup>76)</sup> 그리고 長門州에서 표류민은 米, 酒, 襦衣, 煙竹, 蓑笠, 油衫 등을 지급받았다.<sup>77)</sup>

표류민들은 표착지에서 구조된 후 長崎까지 육로로 10일만에 걸쳐 이동하여 長崎까지 송환되었다.<sup>78)</sup> 이곳에서 표류민에게는 米, 酒, 襦衣, 鹽醬, 浦兒, 貼匙, 食鼎, 水桶, 小盤, 沙鉢 등이 지급되었다. 이후 通詞가 표류민의 언행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종교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여 통과하면,<sup>79)</sup> 표류민을 對州藩으로 보내졌다.<sup>80)</sup> 한편 가장 북쪽인 蝦夷의 경우는 江戸를 거쳐 대마도로 갔으며, 가장 남쪽인 琉球의 경우는 薩摩州를 지나 長崎를 거쳐 대마도로 갔다.

다음으로 對馬島에 표착한 경우에는 표착지의 왜인들이 표류민을 발견하면 일단 府中(嚴原)으로 데리고 갔다. 府中에서는 표류민에게 옷, 음식, 기타 물건을 지급하였으며, 배가 부서진 경우에는 帆竹, 風席 등으로 修補하였다.<sup>81)</sup> 시기적으로 보면 1650년대 이전에는 불규칙 하지만 襦衣, 丹木, 小甲草가 주로 지급되었으며, 1700년대 이후에는 거의 규칙적으로 襦衣 1領, 丹木 2斤, 枝三草 10匣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대접을 받은 표류민들은 府中으로부터 鰐浦나 佐須奈浦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주가 江戸에 가서 대마도에 없을 때는 江戸의 도주에게 알리고, 그 분부를 기다렸다가 도착하면 비로소 출발하였다.<sup>82)</sup>

75) 『漂人領來臚錄』 책5, 을해(1695) 8월 12일, 606~609쪽.

76) 河野良輔, 「近世北浦沿岸における朝鮮漂着船の取捌きについて」, 『山口縣地方史研究』 6, 1961, 12~13쪽.

77) 『漂人領來臚錄』 책1, 무자(1648) 3월 16일; 경인(1650) 6월 22일.

78) 岸浩, 「長門沿岸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を巡る諸問題の検討」, 『朝鮮學報』 11 9·120, 朝鮮學會, 1986, 439쪽.

79)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339~342쪽.

80) 岸浩, 「長門北浦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唐人送り-」, 『山口縣地方史研究』 54, 1986, 10쪽.

81) 『漂人領來臚錄』 책1, 병술(1646) 3월 26일; 책2, 갑인(1674) 3월 25일.

둘째, 漂差의 접대이다. 17~18세기 중반에 조선 표류민은 그들을 인솔하여 오는 임무를 맡은 漂差에 의해 송환되었다. 1680년대 중반까지 표류민의 송환은 표착지에 관계없이 대체로 표차에 의하였으며, 順付되는 경우는 거의 대마도에 표착한 경우였다. 이때 順付는 徵債事로 오는 差倭, 渡海譯官, 歲遣船 편에 하였다.<sup>83)</sup> 그러나 1680년 중반 이후에는 1682년의 壬戌條約에 의해서 本州 및 九州에 표착한 경우에는 표차에 의해 표류민의 송환되었으며, 대마도의 경우에는 順付에 의하였다. 순부의 경우에 年例送使 편에 보내왔으며, 연례송사가 끝난 이후에는 禁徒倭가 표류민을 순부해 왔다.<sup>84)</sup> 표류민 송환 때 대개는 한 지역에 표착한 표류민을 표차가 領來해 오든가, 혹은 같은 船便에 순부하여 보내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표류민이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 표착하였다가 동시에 송환되는 경우도 35건이 있었다고<sup>85)</sup> 한다.

먼저 표차와 표류민이 탄 배가 出來하면 問情과 審問이 있었다. 동래 지역의 烽軍, 哨探將 등이 이를 확인하고, 왜선 및 조선 표풍선 몇 척이 출래했다고 보고하였다. 출래한 배들은 館所(초량왜관)로 領付한 후 訓導, 別差 등이 각 배의 정체와 출래한 왜인들의 신분, 숫자, 출래목적, 서계, 노인 등 소지한 문서의 종류를 조사하고, 돌아온 조선인의 표류경위에 대해 問情하였다.<sup>86)</sup> 그 후 부산진에서 표류민에게 표류경위와 일본에서의 행적 및 그곳에서 받은 대접 등에 대해 심문하였다. 즉 표류민에게 언제, 어떤 일로, 어디로 가려다가 표류하였는지를 심문하였다. 그러면 표류민은 거주지와 함께 심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송환되었는지를 진술하였다.<sup>87)</sup> 부산진에서도 위와 같이 조사한 후 표류민들은 동래부로 보내졌다. 동래부에서 다시 조사하여 부산진에서의 진술과 다름이 없으면 표류민을 原籍地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役과 성명은 비변사로 올려 보냈다.<sup>88)</sup> 그러나 1727년(영조 3)에 표류민에 처

82) 『漂人領來謄錄』 책1, 병술(1646) 4월 2일, 71쪽.

83) 『漂人領來謄錄』 책1, 임진(1652) 1월 8일; 책1, 계사(1653) 2월 23일.

84) 『增正交隣志』 권2, 差倭.

85)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21~223쪽.

86) 『漂人領來謄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30~32쪽.

87) 『漂人領來謄錄』 책5, 을해(1695) 9월 8일, 616~617쪽.

88) 『漂人領來謄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50~56쪽.

벌이 거론되어 돌아온 표류민 중에 沙工은 刑推定配하고, 格軍은 嚴刑三次 하였다.<sup>89)</sup> 그러다가 1744년 沙工과 格軍이 고의로 표류하지 않았는데도 형벌이 무겁다고 지적되어 폐지하였다.<sup>90)</sup>

다음으로 표류민의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송환된 표류민의 처리와 지방관에 대한 추고가 있었다. 한편 배가 멀리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하여 표류민의 原籍官을 추고하였으며, 표류민이 발생하였음에도 표류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원적관도 역시 추고하였다. 그러나 牟, 米, 柴 목 등을 운반하다가 표류한 경우는 漁採船과 다르다 하여 지방관을 처벌하지 않았다.<sup>91)</sup> 이후 漂差가 가지고 온 書啓牒本은 중앙의 禮曹로 올려 보내며, 표차를 접대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타당하면 인근 고을의 수령을 接慰官으로 差定하였다. 이후 표차, 押物, 伴從, 沙工倭, 通事倭 등에게 예물 지급과 함께 도착 직후의 茶禮부터 下缸宴을 거쳐 출발 직전의 上缸宴에 이르는 여러 차례의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sup>92)</sup> 그리고 交隣 상대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하여 이후에 島主에 대한 回禮禮物를 보내게 되었다.<sup>93)</sup> 회사예물은 虎皮 2장, 人蔘 1근, 白苧布 5필, 白綿紬 5필, 白木綿 10필, 黃毛筆 20명, 花席 5장, 四張付油氈 2부, 眞墨 30홀이었다.

17~18세기 중반의 『漂人領來牒錄』에 나타나는 제주도 표류민을 領來해 온 漂差 일행에게 지급하는 예물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후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공왜와 통사왜에게는 1696년부터 예단이 지급되지 않았다. 표차에 의해서 표류민이 領來되어 온 경우에는 예단이 지급되었지만, 順付되어 온 경우에는 별폭회례와 동래 및 부산회례만 지급하였다. 이것은 표차에 의한 領來와 順付되어 오는 경우가 분명히 나누어 진 이후부터 그렇게 시행하였다. 이러한 표차와 일행에 대한 예단은 下降宴과 上缸宴 때 지급되었다. 한 예로 『표인영래등록』에 나타나는 1679년 差倭 藤德辰이 제주도 표류민을 송환해 온 경우에 같

89) 『漂人領來牒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50~56쪽.

90) 『漂人領來牒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50~56쪽.

91) 『漂人領來牒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50~56쪽.

92) 『漂人領來牒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50~56쪽.

93) 『漂人領來牒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50~56쪽.

은 예물을 지급하였다.

〈표 4〉 1679년 제주도 표류민 송환 때 回禮 및 漂差 일행에 대한 兩宴 예물

	虎皮	豹皮	人蔘	白綿紬	白苧布	黑麻布	白木綿	黃毛筆	油氈	花席	眞墨
別幅回禮	1張	1張	3斤	5匹	5匹	5匹	10匹	30柄	3部	2張	30笏
東萊釜山回禮				3	3	2	5	20			20
漂差				3	3	2	5	20	2	2	20
押物 1명				2	2		3				
伴從 3명				1	1		2				
沙工倭 1명				1	1						
通事倭 1명				1	1		2				

한편 제주도 표류민을 領來해 온 漂差 일행에게 지급하는 예물은 수량에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1724년 제주도 표류민 송환은 酌菴送使의 順付에 의하였는데, 그 일행에 배풀어진 의례와 예물은 다음과 같다.

〈표 5〉 1724년 제주도 표류민 송환 때 回禮 및 漂差 일행에 대한 兩宴 예물

	虎皮	豹皮	人蔘	白綿紬	白苧布	黑麻布	白木綿	黃毛筆	油氈	花席	眞墨
別幅回禮	1장	1장	3근	5필	5필	5필	10필	30병	2부	5장	30홀
東萊·釜山回禮				3	3		5	10			
漂差				3	3	2	5	20			
押物 1명				2	1		3				
伴從 3명				1	1		3				
沙工倭 1명				1	2		3				
通詞倭 1명				1	2		3				

이상의 검토처럼 17세기 이후에 표차에 의한 표류민 송환 때 지급하는 예물은 別幅回禮, 東萊·釜山回禮, 漂差, 押物 1명, 伴從 3명, 沙工倭 1명, 通事倭 1명에게 虎皮, 豹皮, 人蔘, 白綿紬, 白苧布, 黑麻布, 白木綿, 黃毛筆, 油氈, 花席, 眞墨을 차별을 두어 주었다. 이 가운데 虎皮, 豹皮, 人蔘, 白綿紬, 白苧布, 黑麻布, 白木綿, 黃毛筆은 禮曹에서, 油氈, 花席, 眞墨은 本道에서 마련하였다. 이렇게 예물을 지급하는 대상과 물품이 정해진 것은 1640년대 중후반이었다고<sup>94)</sup> 한다. 그러나 1665년 이후에 지

94)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24~225쪽.

급하는 예물과 물품의 수량에 가감이 있었으며,<sup>95)</sup>이후 차츰 줄여 나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宴席에는 이들의 접대를 위한 鄉接慰官이 참석하였다. 향접위관은 인근 고을의 수령 중에서 差定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고을의 수령을 차정하였다는 기록은 1650년부터 나타난다.<sup>96)</sup> 향접위관은 경상도 안의 수령 중에서 차정하였는데, 전체 180사례 가운데 양산이 67건, 울산이 26건, 자인 16건, 고성 7건, 영산 6건, 영일 5건, 영천 3건, 거창·기창·함안·신령·대구·청하·영해·풍기이 각각 1건, 기록되지 않은 것이 36건이었다고<sup>97)</sup> 한다. 『漂人領來臚錄』에 나타나는 제주도 표류민에 대한 鄉接慰官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산군수 15회, 울산부사 4회, 영일현감 2회, 밀양군수 영산현감 흥해군수 대구관관 자인현감이 각각 1회였다. 이처럼 경상도의 수령이 대부분 향접위관을 맡았는데, 동래 인근 고을인 양산군수와 울산부사가 다수였다.

마지막으로 『漂人領來臚錄』에 나타나는 제주도 표류민을 송환해 온 표차와 일행에 대한 실제 접대는 禮曹에서 보내온 예물이 도착하면 동래부가 자체 내에서 행하였다.<sup>98)</sup> 먼저 향접위관을 차정하는 것을 동래부에서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차정된 향접위관이 표차를 접대한 후 이를 동래부사에게 보고하면, 동래부사는 이를 다시 관찰사나 예조에 보고하였다. 한편 표류민 송환 때 가져온 書啓, 즉 禮曹參議와 동래부사 및 부산첨사에게 보내온 서계는 茶禮 때 받아서 예조에 올려 보냈다. 예조는 承文院에 명하여 회답서계와 동래 및 부산의 所答草稿를 작성하도록 하였다.<sup>99)</sup> 표류민을 領來해 온 표차가 조선에 머무는 기간은 3~4개월이 42건, 4~5개월이 20건이며, 1년 정도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고<sup>100)</sup> 한다.

95) 『增正交隣志』 권2, 差倭, 漂人領來差倭 속중 22년.

96) 『漂人領來臚錄』 책3, 기미(1650) 10월 21일, 111~113쪽.

97)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26~227쪽.

98) 『漂人領來臚錄』 책14, 갑진(1724) 4월 19일, 50~56쪽.

99) 『漂人領來臚錄』 책3, 기미(1650) 10월 21일, 111~113쪽.

100) 朴眞美, 앞의 논문, 1996, 227~228쪽.

## V. 맺음말

전근대시기에 海域을 이용한 네트워크는 국가 차원에서는 교역이나 장거리 교역로를 통해서 朝貢貿易의 특혜를 활용하여 주요 교역항을 다각적으로 연결시켰다. 반면에 민간 차원의 해역은 다층적면서도 자연적인 성격이었다.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漂流도 官의 조공 통치 지면에 적용되어 해역으로서 영향력이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민의 표류를 통해서 지리적인 해역을 규명하고, 민간 해역 체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조선후기에도 지리적 해역 안에서의 표류와 민간 교류는 지속성을 보였는데, 실제로 제주도 해역에서도 표류민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17~18세기 중기에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표류민이 발생하는 민간 해역의 중심지였으며, 해역의 변화상을 설명해 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17~18세기 중반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제주도 표류민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지리적 해역의 범위를 확인하고, 표류민을 통한 해역의 교류상을 『漂人領來臚錄』에서 제주도의 표류사례를 30건 찾을 수 있었다. 제주도 거주 표류민은 바람과 해류 때문에 일본의 九州의 肥前州와 筑前州, 對馬島 해역에 주로 표착하였다. 표착 후에 표류민은 長崎나 對馬島를 거쳐서 조선 동래부로 송환되었다. 조선후기가 되면 표류민의 송환 과정은 국가 사이의 질차를 따랐다. 이런 점에서 표류과 표류민의 송환은 자연적 현상에 인위적 체제가 작동하여 마무리되었음을 알 있다. 제주도 표류민은 표류를 통해서 표착지 일본에서 일본인과 만나면서 일본문화를 직접 접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전근대시기에 표류는 단순한 해난사고가 아니라 민간차원의 문화교섭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17~18세기 중반에 제주도 표류민의 표류 시기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표류선에 승선한 이유는 進上을 하러 가거나 진상을 마친 이후에 제주도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표류민의 표류선에는 무역, 추쇄 등 다양한 이유로 함께 같은 배에 승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선박의 이용이 빈번하지 못했던 시기에 육지로의 이동을 위해서 동시에 같은 배를 이용

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17~18세기 중반에 표류한 제주도 표류민의 대표적인 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징은 제주도에서 조사과정에서 출신지를 대부분 전라도의 군현으로 위장하여 換稱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에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이었다. 이것은 지속적인 표류민의 발생과 송환에도 불구하고 異文化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표류민을 통한 이문화의 접촉과 수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 일 것이다.

아무튼 조선후기에 제주도 해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표류민 문제는 『漂人領來臚錄』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표류민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 인근 국가에 표류한 사례를 통해서 제주도 해역의 표류 문제를 폭 넓게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조선 전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던 표류민 송환 문제를 일본의 근세국가 성립 이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해역 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姜昌龍 외 공저,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일지사, 1997
- 高橋公明, 「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民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8, 제주도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 \_\_\_\_\_, 「해역세계 가운데 제주도와 고려」, 『島嶼文化』 2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2
- 국립제주도박물관 편, 『항해와 표류의 역사』, 국립제주도박물관, 2003
-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도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耽羅文化』 32, 제주도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 모모키 시로 엮음, 최연식 옮김, 『해역 아시아사 연구입문』, 민속원, 2012
- 閔德基·孫承喆·河宇鳳·李薰·鄭成一, 「韓日間 漂流民에 관한 研究」, 『韓日關係史研究』 12, 한일관계사학회, 2000
- 朴眞美 「《漂人領來謄錄》의 綜合的 考察」, 『慶北史學』 19, 경북사학회, 1996
- 신동규, 「근세 漂流民의 송환유형과 ‘國際關係’-조선과 일본의 제3국 경유 송환유형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17·18, 2002
- 李薰, 「朝鮮後期 대마도의 漂流民送還과 對日관계」, 『국사관논총』 26, 국사편찬위원회, 1991
- \_\_\_\_\_,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 \_\_\_\_\_, 「‘漂流’를 통해서 본 근대 한일관계-송환절차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3, 한국사연구회, 2003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도유민 실태와 사회적 지위 변화」, 『역사와 경계』 69, 부산경남사학회, 2008
- 정문수 외 공저, 『해항도시 문화교섭 여구 방법론』, 도서출판 선인, 2014
- 정성일, 「漂流記錄을 통해서 본 朝鮮後期 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 『국사관논총』 86, 1996
- \_\_\_\_\_, 「漂流記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 漁民과 商人의 海上活動-《漂人領來謄錄》과 《漂人被仰上帳》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99, 국사편찬위원회, 2002
- \_\_\_\_\_, 「全羅道 住民의 日本列島 漂流記錄 分析과 데이터베이스화(1592~1909)」, 『史學研究』 72, 한국사학회, 2003
- \_\_\_\_\_,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 池内敏, 「18세기 일본 민중의 조선 인식」, 『東方學志』 8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 한일관계사학회 편, 『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 國學資料院, 2001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10
- 關周一, 『中世日朝海域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 高橋公明, 「16世紀の朝鮮・對馬・東アジア海域」, 『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 校倉書房, 1989
- \_\_\_\_\_,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濟州島を中心とし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33, 名古屋大學文學部, 1987
- \_\_\_\_\_,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 『歷史學研究』 573, 歷史學研究會, 1987
- \_\_\_\_\_, 「海域世界の交流と境界人」, 『周縁から見た中世日本(日本歴史 14)』, 日本歷史學會, 2001
- 木部和昭, 「朝鮮漂流民の救助・送還にみる日朝兩國の接触－朝鮮通詞の問題と漂流民の騷擾事件を中心として－」, 『史境』 26, 歷史人類學會, 1993
- 岸浩, 「長門沿岸に漂着した朝鮮人の送還を巡る諸問題の検討」, 『朝鮮學報』 119・120, 朝鮮學會, 1986
- 六反田豊, 「朝鮮後期濟州島漂流民の出身地詐称」,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0, 朝鮮史研究會, 2002
- 李薰, 「漂流兼帶制に對する一考察-1682年漂流民順付(壬戌約條)交渉および運用を中心に」, 『年報朝鮮學』 5, 九州大, 1995
- 長森美信, 「朝鮮後期濟州の進上物資調達と海上運送」, 『史泉』 93, 2001
-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1988
- \_\_\_\_\_, 「近世日本の漂流民送還体制と東アジア」, 『歷史評論』 400, 歷史科學協議會, 1983

Abstract

## The Drifter of Cheju Island and the Sea Area in the 『Record of Pyoinyeongnae』

Kim, Kang-Sik\*

Sea area-based network during the per-modern period diversely connected major trading ports through the use of tax favors given to tributary trade based on trading or long-term trading routes at a n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sea areas at a private level had multi-layered and natural characteristics. For this reason, they affected the base of tributary rule by government officials in Cheju Island to maintain their influence as sea areas. In this regard, geological sea areas can be defined through drifting,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private sea area system can be clearly understood. Many studies were conducted in terms of drifting. However, studies on drifters of Cheju Island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have yet to produce concrete results. It is due to the fact that control through maritime embargo imposed in North East Asia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stabilization of international order through tributary trade led to reduction in drifters. However, drifting and private exchanges continued within the geological sea areas, and drifters of Cheju Island continued to take place in this regard. Cheju Island continuously served as the center of private sea areas in East Asia, and it well demonstrates changes in the sea areas.

---

\* HK Professo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The study was concentrated on verifying the scope of geological sea area in East Asia through drifters of Cheju Island and examining exchanges in the sea area through drifters. Toward this end, drifting cases were confirmed through 'Record of Pyoinyeongnae' that helps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drifters of Cheju Island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in order to figure out reasons for drifting, drifting process, drifting area, stay, repatriation, drifters' status and drifters' exposure to other cultures.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explain that drifting was a path of cultural exchanges at a private level instead of marine accidents in the pre-modern period and define the scope of sea areas and network centering on Cheju Island.

Key Word : Drifter, 『Record of Pyoinyeongnae』, Sea Area, Cheju Island, East Asia

교신 : 김강식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E-mail: ks1592@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01. 15.

심사완료일 2016. 02. 11.

게재확정일 2016. 02. 12.